

# chatGPT Prompt Engineer

scraped

금일(3/22) 주간회의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AI/DT 관련 새로운 직군(전세계적으로 인력 극소수)**,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에 대해서 한국어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Underline요약)

(대학원 지도교수님도 랩미팅에서 미국 여러 지인분들이, 3월초부터 인력 구인 관련해서 요청 다수 발생)

## [ 기사 요약 ]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코딩을 몰라도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 감각과 창의적 사고이며, AI(ChatGPT 등)가 역량을 120% 발휘할 수 있게 적합한 지시를 내리는 인력이다.

이에 현업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AI와 대화하는 프롬프트 교육 자체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코딩(개발) 능력보다는 생성 AI에 대한 사용 경험과 논리적·언어적 관점에서, AI와 ‘잘 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은 별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 시험을 거친다. 뤼튼은 프롬프트 설계 시험으로 필요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AI 업계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 새로 생긴 직군이어서 경력자가 없다”며 “AI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해당돼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생성 AI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는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주목받는 것은 AI에 입력하는 질문 수준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로벌에서는 발 빠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 확보에 나섰다. 구글이 약 5000억원을 투자한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을 비롯해, 영국의 대형 로펌 ‘미시콘 데 레야’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나섰다.

“미래에는 코딩 지식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AI와 대화하는 엔지니어’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URL :

- <https://platum.kr/archives/203921>
- <https://english.elpais.com/science-tech/2023-03-16/the-ai-boom-has-created-a-new-career-being-an-expert-at-talking-to-machines.html>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84265.html>

+==